

# 자율관리어업

## & 수산소식

The Fisheries Newsletter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상호물산빌딩 A동 501호 Tel : 02)589-4604 Fax : 02)589-1500 www.korfish.or.kr

발행인 : 회장 김영규 ■ 기사·편집 : 자율관리팀

### 더불어 함께하는 어업공동체, 새로운 희망을 품다... '제14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성황리 개최 10월 31일~11월 1일 여수시에서, 전국 공동체 어업인 2,000여명 참여

제14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전남 여수시 엑스포 박람회장과 디오션리조트에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회원 및 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더불어 함께하는 어업공동체, 새로운 희망을 품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전국대회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권오봉 여수시장, 김호연 연합회장 등을 비롯한 내외빈과 공동체 어업인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10월 31일 오후 2시에 열린 기념식에서는 올해 최우수 공동체로 선정된 충남 서산 웅도공동체가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것을 비롯, 모두 모두 21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아울러 참여 주요내빈들이 어업공동체의 새로운 도약과 화합의 의미를 담아 '희망' 퍼포먼스를 펼치는 한편 대통령 축하메시지도 낭독됐다.

이밖에 기념식에서는 자율관리어업 혁신결의문 낭독과 올해 최우수공동체로 선정된 웅도공동체의 성공사례를 영상으로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11월 1일에는 디오션리조트에서 자율관리어업연합회 임원진과 회원들이 모여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전국대회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성애 박사(해양아카데미 학장)가 공동체 어업인을 대상으로 '자율관리어업의 혁신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특별강의를 했다.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는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 정착과 어업인의 참여



의식 고취를 위해 지난 2003년 전남 목포에서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이래 매년 전국 주요 연안도시를 중심으로 행사를 이어 왔으나 2016년 13회 대회 때부터 격년으로 행사를 갖고 있다.

자율관리어업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의 주춧돌을 놓기 위해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지키고 가꾸는 '새 어촌운동'으로, 지난 2001년 시작된 이래 성장을 거듭하여 지금은 1,100여개 공동체에 7만여 어업인이 참여하고 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지금 우리 수산업은 수산자원 고갈로 위기를 맞고 있지만 자율관리어업은 우리 어업이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다"며 "현재 마을어업 위주의 자율관리어업이 어선어업에 뿌리내릴 때 우리나라 어업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호연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장은 대회를 통해 "그동안 자율관리어업은 괄목할만한 양적성장을 이뤘으나 아직도 질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여수에서 열린 제14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에서 어업인 대표들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손을 맞잡고 자율관리어업의 발전을 염원하고 있다.



부족한 실정이라며, 앞으로 현장중심의 구성원 교육 등을 통해 어업인의 의식변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제14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대통령 축하 메시지

자율관리어업은 1석 3조의 어업 자율혁신운동입니다. 자율관리어업으로 어업인의 소득은 올라갔고, 어촌과 바다는 깨끗해졌습니다. 수산자원을 소중히 관리하며 어장환경을 꾸준히 개선한 결과입니다.

시작 당시 60여개, 7,000여명에 불과하던 공동체가 이제는 1,100여개 7만여명의 공동체가 되어 우리 어업의 핵심동력이 되었습니다. 어업인들의 자율과 협력을 통해 우리 어업과 어촌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최근 우리 수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도한 어획과 해양환경 변화로 연근해 어획량이 100만톤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어촌의 고령화로 그물을 끌어올릴 인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우리 수산업의 희망을 말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산물 소비량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세계 수산물 소비량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산업은 전통산업이지만 미래 유망산업이기도 합니다.

자율관리어업이 그 진가를 발휘할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 오신 것처럼 수산자원을 잘 관리하고 불법어업을 막는다면 우리 어촌은 다시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바다와 어촌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여러분의 노력을 힘껏 응원하고, 예산, 세제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첨단 양식기술과 새로운 가공식품 개발로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바다와 어촌을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만드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바다의 주인공은 바로 어업인 여러분입니다. 자율관리어업의 역사가 우리 어업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더욱 더 번성하기를 기원합니다.

### 제14회 전국대회 정부포상자 명단



<대통령 표창> △홍은표 제주 상산공동체 위원장 △서산 웅도공동체(단체) △여수 안포공동체(단체)  
<국무총리 표창> △박석규 감성동공동체 위원장 △김지용 청평대수면공동체 위원장

<해양수산부장관 표창> △남원시내수면공동체(단체) △통영이동성구획어업공동체(단체) △최용운 장림공동체 위원장 △강차병 이작공동체 위원장 △정성광 일산공동체 위원장 △박종유 한수공동체 위원장 △정래만 도성공동체 위원장 △김성필 용기공동체 위원장 △황동수 거진공동체 위원장 △용양배 송호공동체 위원장 △이종덕 객산공동체 위원장 △윤종태 청곡공동체 위원장 △정판수 사천늪시어선어업공동체 위원장 △박영준 척사공동체 위원장 △고소엽 경기도수산과 주무관 △구본석 경주시 해양수산과 주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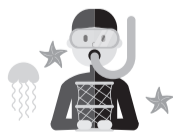
## 자율관리어업

###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의 주춧돌

우리 바다, 우리 수산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인식의 전환 자율관리어업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 어업인 스스로 지키고 가꾸는 자율관리어업 활동

#### 어장관리 활동



어장청소, 해적생물구제, 바위뒤이 등으로 수산자원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요.

#### 자원조성 활동



채포제한 제한, 금어기 준수, 어획능력 식감, 종자방류 등으로 자원을 관리해요.

#### 경영개선 활동



공동어업장, 판매 방법 다양화, 가공품 개발로 공동체의 소득을 증가 시켜요.

#### 질서유지 활동



공동체 구성원 간의 협력과 적극적인 분쟁 해결로 공동체 간의 질서를 유지해요.

# 제14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 전국 자율관리어업인 화합의 한마당 ... 어업공동체의 새로운 도약 다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격려사 모습.



김호연 자율관리어업연합회장의 대회사 모습.



김영춘 해수부 장관을 비롯한 내빈들이 어업공동체의 새로운 희망을 주제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제14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가 10월 31일부터 1박 2일간 여수엑스포박람회장과 디오션리조트에서 개최됐다.

행사 첫날인 31일 12시부터 여수엑스포박람회장은 어업인들은 태운 버스가 속속 도착했다. ‘더블漁 함께하는 어업공동체, 새로운 희망을 품다!’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전국대회에는 전국에서 2,000여명의 공동체 어업인과 자율관리어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장 입구에는 자율관리어업 활동사진과 각종 수산물 관련 홍보부스가 마련돼 어업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개회식은 전국 12개 시도별 입장 퍼레이드에 이어 이번 행사를 주관한 김영근 자율관리어업 전남도회장의 개회선언으로 공식행사가 시작됐다.

이어 내빈소개와 함께 김호연 연합회장의 대회사,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의 축사, 대통령 축하메시지 낭독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자율관리어업 정부유공자 포상에서는 올해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에서 최우수공동체로 선정된 충남 서산 웅도공동체와 제주 성산공동체 흥은표 위원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것을 비롯, 모두 21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포상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수했다.

이어 2018년 공동체 평가에서 전

국 최우수공동체로 선정된 서산 웅도공동체의 성공사례가 상영되고, 자율관리어업인 혁신결의문이 낭독됐다. 혁신결의문은 자율관리 어업인들이 스스로 혁신하여 우리 수산업의 미래를 개척해 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퍼포먼스는 ‘더블漁 함께하는 어업공동체의 새로운 희망’을 주제로 ‘희망’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자율관리어업 각 지역회장들과 주요내빈이 단상에 도열해 터치버튼을 누르자 오색연막과 함께 특수 제작된 ‘희망의 손’ 풍선이 부풀어 오르며 어업공동체의 새로운 도약과 화합을 염원했다.

1부 공식행사를 마친 후에는 디오션리조트로 이동하여 만찬과 함께 김연자 등 초청가수의 축하공연과 지역별 어업인들의 장기자랑으로 흥겨운 어울림 한마당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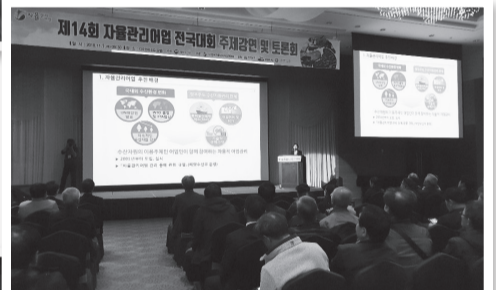
11월 1일 둘째날 어업인들은 디오션리조트에 모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성애 박사의 ‘자율관리어업 혁신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강의 및 외부강사로부터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를 주제로 강의를 듣고, 이어서 자율관리어업연합회 임원진과 회원간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대화의 시간 이후 수산물 관련 기관·단체장의 우수공동체 위원장에 대한 포상과 자율관리공동체 등급별 명패 수여를 끝으로 1박 2일간의 전국대회를 마무리했다.



올해 최우수공동체로 선정된 서산 웅도공동체 (김종운 위원장)가 김영춘 장관으로부터 대통령 단체표창을 받고 있다.

전국대회에 참석한 공동체 어업인을 대상으로 최성애 박사(해양수산개발원)가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전국대회 첫째날 공식행사를 마친후 어업인들이 초청가수의 축하공연을 보며 여흥을 즐기고 있다.



한국수산물 등 수산물 관련 기관·단체에서 우수공동체 어업인들에 대해 포상하고 있는 모습.



전국대회가 열린 엑스포박람회장에 수산물 관련 각종 홍보부스가 설치돼 어업인들의 눈길을 모았다.

### 제14회 전국대회 기관·단체장 포상자 명단

〈경상남도지사 표창〉 △경남 남해 시항공동체 정동현 〈국립수산물과학원장 표창〉 △부산 공수공동체 인정구 △강원 인제 소양호공동체 김중겸 △인천 마시안공동체 노은기 △전남 순천 거차공동체 김만석 〈한국수산업회 표창〉 △인천 신불공동체 라종필 △충남 서산 장도공동체 박재동 △전북 군산 비응도공동체 박용일 〈수협중앙회장 표창〉 △강원 묵호동지망협회공동체 김영호 △경기 안산 제부리공동체 최병천 △경북 포항 정치구획어업공동체 김정출 〈한국수산업진흥재단 이사장 표창〉 △경남 진해 잠도공동체 정상고 △충북 제천 금수공동체 김재호 △경북 영덕 신창리공동체 허덕수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장 공로패〉 △충남 수산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이대환 △경북 포항시 수산진흥과 김초련 △전남 해남군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 최명석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수산질병센터 김태현 △강원도 강릉시 해양수산과 김윤영

### 자율관리어업인 혁신결의문

우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참여 어업인 일동은 급변하는 어업환경과 한중 FTA 등 대내외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스스로 혁신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하나, 우리는 어업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풍요롭고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다.
- 하나, 우리는 어업의 진흥을 위해 경쟁력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변화와 혁신의 미래어업 공동체 창조에 적극 앞장선다.
- 하나, 어업질서 확립과 불법조업 근절은 나부터 실천한다.
- 하나, 우리 바다, 우리 강, 우리 어족자원은 우리가 지킨다.

전국대회 주제강연

# 자율관리어업의 혁신방향과 과제

### 자율관리어업 성과와 문제점

자율관리어업은 이제 어업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굳건히 뿌리내린 주요 수산정책이다.

어업인 스스로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자율적으로 법에서 정한 규정보다 더욱 엄격한 규제를 만들고 이를 실천하는 자율관리어업은 어촌, 어업인의 풀뿌리 운동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율관리어업은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 등에 보급할 수 있는 바람직한 수산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율관리어업은 수산자원관리 측면에서 시작하였으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수산자원관리 효과, 소득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 고질적인 어업갈등 해결효과 그리고 어촌 내 고령자 배려 등의 사회안전망 효과 등 자율관리어업의 파급 효과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참여공동체는 1,170개, 참여어업인 수는 7만2,000여명으로 자율

관리어업 발족 당시에 비해 공동체 수는 17배, 참여어업인은 14배가 증가했다. 특히 연근해 자원관리에 효과가 큰 어선어업 공동체는 2001년 출범 당시 8개소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215개소가 참여함으로써 자원관리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긍정적인 평가의 이면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동기유발 요인이었던 육성사업비가 투자대비, 효과가 낮다는 예산당국(기재부)의 경제논리에 밀려 사업비가 줄어들면서 자율관리어업을 이탈하는 공동체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정부지원이 종료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동체가 자율관리어업의 지속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율관리어업이 정부의 사업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님에도



최성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불구하고, 많은 공동체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체 지도자들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평가자료를 일일이 챙기면서, 투명한 회계 처리하기에는 지나치게 고령이라는 점도 자율관리어업의 지속적인 활동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자율관리어업 방향과 과제

자율관리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인 예산확보가 선결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법과 제도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자원관리 효과를 사회경제적 평가를 통해 예산확보의 근거로 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는 자율관리어업과 연계한 다양한 정책사업 개발이 필요하다. 자율관리어업의 궁극적 목적은 공동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이다. 따라서 자원관리와 소득을 연계시킨 지역실정

에 맞는 종합패키지사업 개발에 보다 힘을 쏟아야 한다.

이와 함께 한정된 육성사업비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율관리어업 사업 추진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모든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등급평가제를 지양하고, 공동체가 제안한 사업에 대해 평가하는 이른바 사업대상 선정 평가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역량강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 공동체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소수 정예화가 필요하며, 선진과 자립공동체를 포함하여 500개 정도의 우수공동체가 지역사회의 구심체 역할을 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벤처대학 개념의 이른바 자율관리공동체 아카데미(안)를 설립하여 정책, 자원관리, 경영, 사업관리 등 자율관리어업과 관련한 일련의 교육을 원스톱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

## 자율관리어업 지역담당 컨설턴트 중간평가 회의 개최

### 2017년 활동실적 중간보고 및 활성화 방안 협의



한국수산회는 10월 12일 지역담당 컨설턴트 중간평가 회의를 갖고 컨설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수산회는 10월 12일 KTX 영등포역 회의실에서 전국의 지역담당 컨설턴트 위원(15명)을 비롯, 해양수산부 및 한국수산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자율관리어업 지역담당 컨설턴트 중간평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컨설턴트들은 지역별 컨설팅 활동실적을 보고하고 향후 컨설턴트 운영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와 함께 보다 효과적인 컨설팅을 위해 외부강사를 초빙해 컨설턴트의 역할에 대한 강의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

현재 지역별 컨설턴트들은 공동체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점수가 500점 이하인 부진공동체를 대상으로 현지

를 방문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4월부터 시작한 금년도 공동체에 대한 컨설팅은 9월 말 현재 총 522개소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컨설팅 대상공동체 선정과 관련, 지자체별 컨설팅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희망공동체를 대상으로 지역담당 컨설턴트가 현장답사를 추진토록 하는 방안에 대한 컨설턴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와 함께 컨설턴트들은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인 사항 등 다양한 발전방안을 제시해 향후 자율관리어업 사업계획 수립시 검토키로 했다.

## 전북관내 공동체 어업인, 하전공동체에서 교육

전북 관내 자율관리공동체 어업인 100여명이 10월 23일 전북 줄포만 갯벌생태공원(하전공동체)에서 자율관리어업 교육을 받았다. 이날 교육에서 하전공동체 권영주 위원장이 어장관리 활동을 소개하고, 자원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한국수산회 컨설턴트와 자율관리팀장이 강사로 나서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



한 교육을 받아 공통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 경남관내 공동체 어업인, 자율관리 정책교육

경남 관내 자율관리공동체 어업인 90여명은 10월 18일 통영시 경남수산기술사업소 회의실에서 자율관리어업 정책교육을 받았다. 이날 교육에서는 효율적인 자율관리어업 추진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함께 통영시와 경남기술사업소 관계공무원들이 참여해



자율관리어업 추진과정에서의 애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고성 정치망·두포 자율관리공동체, 바다정화 활동

경남 고성 정치망 및 두포 자율관리공동체는 10월 17일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인근 해안에서 고성군 관계자 등과 함께 바다 대청소 활동을 펼쳤다.

공동체 회원들은 고성군 및 농어촌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펼친 바다정화 활동을 통해 해안변의 페스티로폼과



페로프 등 해양쓰레기 3톤 가량을 수거해 처리했다.

### 부산에서 한·중·일 민간어업협의회 개최

#### 한국수산회, '우호조업 결의문' 제안



한국수산회는 10월 30일 부산에서 한중일 민간어업협의회를 갖고 3국간 민간어업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수산회 김영규 회장을 비롯, 중국어업협회 자오싱우 회장, 대일본수산회 시라토 도시로 회장을 대표단장으로 하는 한중일 민간어업협의회가 10월 30일 부산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안전조업 및 질서유지, 자원관리 등에 관한 협력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특히 우리측은 3국 어선간 어구 절단, 유실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우호적인 조업을 유지하기 위

해 가칭 '3국 단체간 어구피해 방지 및 우호조업 유지에 관한 결의문' 채택을 제안했다.

또한 비허가 수역에서 조업하는 불법어선들에 대한 교육 및 지도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민간단체 차원에서 국제적 환경 이슈인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할 것을 제안하고, 관계 어업인에 대한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한국어촌어항공단 본격 출범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최명용)이 출범했다. 공단은 10월 30일 서울 금천구 소재 노보텔 엠베서더호텔에

서 출범식을 갖고, 새 비전과 미션을 선포했다.

공단은 1987년 사단법인 한국어항협회로 출발해 1994년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후, 2007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4월 17일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10월 18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됐다.

### "여성어업인이 수산업의 미래다"

#### 제1회 여성어업인 포럼 개최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와 수협중앙회는 10월 30일 롯데월드타워 스타이31 컨벤션에서 제1회 여성어업인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 오영훈 국회의원, 김임권 수협중앙회장, 김춘덕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을 비롯, 여성어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 '제16회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성황리 열려



제16회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개막식 행사에는 국내 주요기관장, 참가업체 및 해외국가관, 바이어 대표 등이 바다 식재료를 활용한 '해조(海藻)+회비빔밥' 만들기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제16회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BISFE 2018)'가 성황리에 열렸다. 부산시가 주최하고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후원하는 BISFE 2018은 BEXCO, 한국수산무역협회 공동 주관으로 10월 3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막이 올라 11월 2일까지 개최됐다. 올해는 25개국 410개사 1,075부스가 참여했다.

### 제2회 해양수산 인재육성의 날 행사

#### 올해 해양수산 신지식인 5인 선정



해양수산부는 올해 해양수산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2018 해양수산 신지식인' 5인을 선정하고, 10월 3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2

회 해양수산 인재육성의 날' 행사에서 포상했다.

올해 해양수산 신지식인은 지자체와 관련 업단체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 현장평가 등을 거쳐 △오세형 그린수산 영어조합법인 대표 △김명기 해송수산 대표 △임성중 운호수산 대표 △박이진 하동녹차 참승어영어조합법인 대표 △이유재 청정수산 대표 등 5명을 선정했다.

### 공동체 탐방 / 삼척시연승연합회 자율관리어업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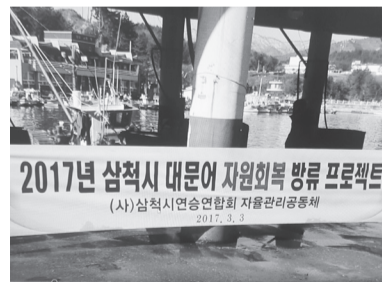
## 동해안 대문어 자원회복 위해 연중 침적 폐어구 수거 및 방류사업 적극 추진



김태선 삼척시연승연합회공동체 위원장.



자원회복을 위한 대문어 방류모습.



공동체의 침적 폐어구 수거모습.



공동체의 침적 폐어구 수거모습.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주로 잡히는 대문어는 잔치날에나 맛볼 수 있는 귀한 어종으로, 가격도 kg당 3만원에 이를 정도로 고가에 거래되고 있지만 갈수록 자원량이 줄고 있어 자원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어종이다.

특히 강원도 동해안의 남단 삼척시 해역에는 연승어업자와 통발어업자간 문어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어잡이 연승어업자들이 지난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결성, 자원관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삼척시연승연합회공동체(위원장 김태

선)는 자율관리어업 참여를 계기로 조업일수 및 조업시간 단축, 어구수 제한, 친환경 어구 사용, 대문어 방류사업 등 다양한 자원관리 활동으로 자원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특히 타 지역에서는 예산 범위내에서 실시하는 침적 폐어구 수거작업을 연중 추진하는 한편 종전에는 일몰 때까지 조업하던 것을 오후 3시면 입항토록 해 조업시간을 단축했다. 또 일요일에는 조업을 금지토록 하고 어구 수도 40장으로 제한함으로써 어획강도를 크게 줄였다.

이와 더불어 종전에는 낚을 사용하던 봉돌을 황토와 시멘트를 배합한 친환경 봉돌로 교체하고, 문어를 잡는 미끼도 이

전에는 돼지비계 등 생고기를 사용해 바다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으나 지금은 모형계를 사용함으로써 어장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이같은 자원회복을 위한 공동체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회원들의 조업일수는 굵은 낚시를 제외하면 연간 100일에도 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김태선 위원장은 밝혔다.

하지만 동해속초·고성 해역에서 어획강도가 높은 통발어업의 문어 포획이 연중 금지되는 반면 삼척은 3월16일부터 한달간 통발어업의 문어 포획이 금지되고 있지만 이나마도 기준을 넘는 어구 수 사용 등으로 자원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김 위원장은 덧붙였다. 현재 삼척의 경우 통발어선의 어구 수는 1,500개로 제한돼 있다.

"삼척 해역의 문어자원은 해마다 10~20% 가량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어업인들만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어구실명제를 통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자율관리어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원관리를 통한 소득증대이며, 이를 위해서는 어선어업의 참여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이를 유인할 수 있는 동기 부여책 마련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